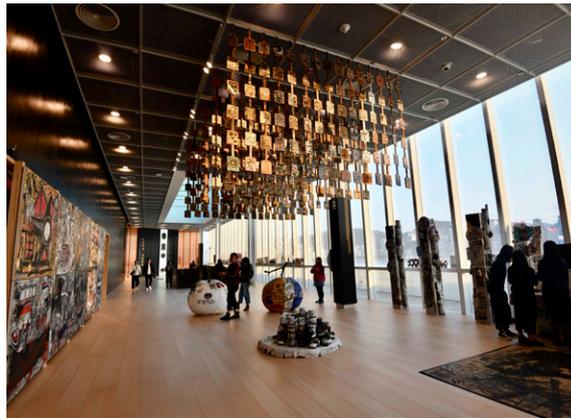


HONG KONG LINER



침사추이 수변의 홍콩 예술관

개보수 공사를 마친 예술관에는 새로운 별관 건물과 풍부한 전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개보수 공사 마친 홍콩 예술관 재개관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마친 홍콩예술관이 지난 2019년 11월 재개관하였다. 건물의 투명함을 나타내는 유리로 된 외관 디자인이 침사추이 수변의 예술관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총 전시 면적은 40%가량 확장된 약 1만 제곱미터로, 대형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9미터 높이의 전시실을 포함하여 갤러리 수가 7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건물 지붕

위에 증축된 공간에는 2개의 갤러리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홍콩 예술관은 1962년 설립된 홍콩 최초의 공공 예술관이며, 지역 예술 활동 촉진과 함께 중국의 오랜 문화유산을 조명한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4개 부문(중국 회화와 서예, 중국 유물, 청말기 수출화, 현대와 홍콩 예술)의 많은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홍콩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세계 3위를 차지



지난 2019년 10월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평가' 순위에서 홍콩은 사업 편의성이 더욱 향상되어 190개 경제체 중 세계 3위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다. 이 보고서는 10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경제체의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하였으며, 홍콩은 '건축 인허가'(1위), '세금 납부'(2위), '전기 공급'(3위), '창업'(5위) 등 여러 분야에서 좋

은 성적을 나타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홍콩은 지난 10년간 보고서에서 정상을 유지해 왔으며, 해외 기업들이 지역 본사와 사무소를 개소하고,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우호적인 사업 환경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 5대 도시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 대한민국 순이었다.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 금융 포럼에 참석한 산업 리더들



제임스 라우 홍콩 재정사무국고장관(사진 왼쪽 첫 번째)이 본회의를 진행하며 진리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재(사진 왼쪽 두 번째),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사진 오른쪽 두 번째) 및 우타마 사바나야나 태국 재무부 장관(사진 오른쪽 첫 번째)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투자자와 산업 관계자 간 아이디어 공유와 협력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1월 13일과 14일 홍콩컨벤션전시센터(HKCEC)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 포럼에 전 세계 금융 정책 입안자와 비즈니스 리더, 거물 투자자들이 3,000명 이상 참석하였다. 저명한 연사로는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와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 재닛 옐런 등이 참가하였다. 캐리 램

행정수반은 홍콩의 금융 시스템이 세계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며 현저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선두적인 연례 금융 산업 행사인 올해 포럼에서는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재정적이고 재구성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홍콩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체크인 카운터 확대

2019년 11월 29일부터 홍콩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체크인 카운터 확대 운영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L 체크인 카운터에는 48개의 수속 카운터가 추가되어 제1터미널의 총 체크인 카운터 수는 369개로 늘어났다.

이와 동시에 제3활주로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2터미널(T2)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모든 항공사의 체크인 서비스는 제1터미널에서 이루어진다.

운영이 중단된 제2터미널은 제3활주로 시스템과 함께 2024년에 재개장할 예정이며, 이후 제2터미널은 출도착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는 완전한 모습을 갖춘 터미널로 변모한다.



제1터미널의 새로운 L 체크인 카운터에는 48개의 수속 카운터를 제공



제1터미널의 새로운 좌석

중국 본토와 홍콩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수정에 관한 협정에 조인

홍콩특별행정구정부와 중앙인민정부상무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틀 하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자유화 수준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수정에 관한 협정은 2019년 11월 21일 조인되었으며,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정된 협정은 2016년 6월에 시행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자유화와 거래 촉진에 대한 협의를 갱신하고 홍콩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중국 본토 시장 진출 장벽을 낮추게 된다.

또한 금융, 법률, 건설 및 관련 공학 서비스, 시험 및 인증, 방송, 영화 그리고 관광과 같은 여러 중요 서비스 분야에도 새로운 확대 조치를 적용하여 홍콩의 서비스 공급 업체가 중국 본토 내에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전개하는 일이 용이하게 된다.

아울러 더 많은 홍콩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중국 본토로 진출할 자격을 얻어 중국 본토 시장에 양질의 홍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디데이(D.DAY) 스타트업 행사 '홍콩을 향하여 (Heading to Hong Kong)'



참여 대상으로 선정된 스타트업 팀들이 청중에게 자신들의 사업을 소개하였다.



토마스 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대표(사진 오른쪽)는 '디데이, 홍콩을 향하여' 스타트업 행사 우승자에게 홍콩경제무역대표부상(HKETO Award)을 수여하였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와 홍콩투자청이 후원하고 디캠프(은행권 청년창업재단)가 주최하는 디데이 스타트업 행사가 지난 1월 16일 서울에서 '홍콩을 향하여 (Heading to Hong Kong)'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날 참여 대상으로 선정된 스타트업 팀들은 투자자, 미디어 및 후원 기관을 포함한 청중 앞에서 비즈니스 피칭 기회를 가졌다.

한-홍콩 비즈니스 협회와 홍콩무역발전국은 서울에서 신년회 개최



축사하는 셸리 웅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한-홍콩 비즈니스 협회와 홍콩 무역발전국은 지난 1월 30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약 50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홍콩과의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콩의 문화유산보존

홍콩에는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다.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파트너십을 통한 역사적 건물 재활성화 계획’은 공공과 민간 부문이 공동 참여하여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흥미로운 문화적

명소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이다.

다음 네 개의 건축물은 2019년 12월에 발표된 최신 계획 (Batch VI)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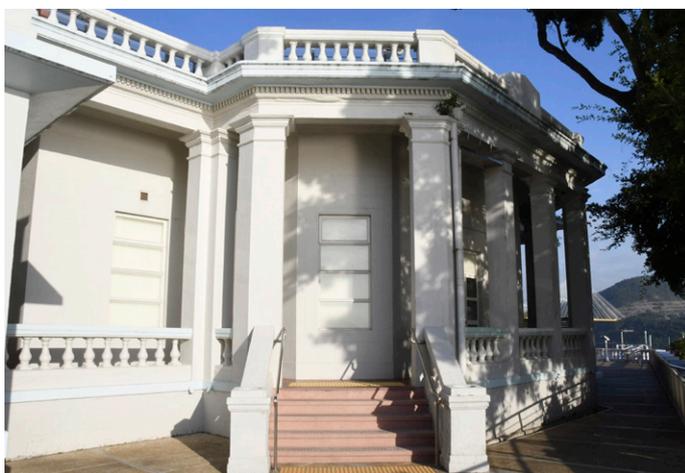
킹인레이 (King Yin Lei)

1937년 홍콩 미드레벨 지역의 스탬프 로드(Stubbs Road)에 중국 르네상스풍의 저택으로 지어진 이 저택은 중국과 서양의 건축 양식을 아름답게 조화시켰다.

타이탐톡 저수지 직원 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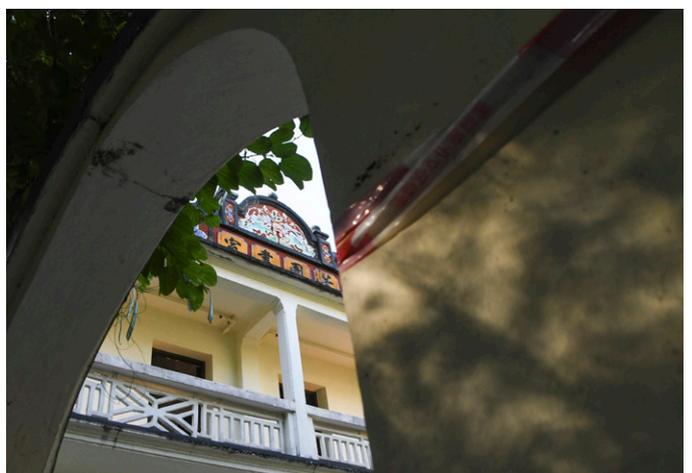
(Tai Tam Tuk Raw Water Pumping Station Staff Quarters Compound)

타이탐 저수지로에 위치한 이 직원 숙소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증가하는 물의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타이탐과 타이탐톡의 담수 공급 계획 목적으로 저수지가 건설되는 시기에 함께 지어졌다.



백루 (Homi Villa)

백루(호미 빌라)는 1930년대 인도의 저명한 무역상이자 자선가였던 울둔치(Jehangir Hormusjee Ruttonjee)에 의해 지어진 사택이다.



방원서실 (Fong Yuen Study Hall)

1920년대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틴리우, 마완에 위치한 전통 중국식 서당은 원래 첸 서당(Chan Study Hall)의 자리에 지어졌다.

2019 임틴사이(Yim Tin Tsai) 예술 축제



임틴사이 섬

홍콩 동부 신계 지역의 외딴 섬인 임틴사이가 한 달 동안 지역 예술가들과 마을 사람들이 참여한 예술, 문화 및 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 전체가 멋진 예술 갤러리로 변신하였다. 이 축제는 2019년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개최되었다. 임틴사이 마을은 3세기에 달하는 역사가 있으며, 로마 가톨릭과 하카 문화의 평화로운 공존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홍콩의 도시화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이주했지만 귀중한 자연 생태와 유산은 모두 잘 보존된 상태다.

홍콩여유사무서(Tourism Commission)가 주관하는 이 예술축제는 예술, 종교, 문화, 유산과 자연을 융합하여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여행 경험을 선사하며 3년간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다.



성 요셉 성당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보존상을 수상



예술 축제 기간에 다양한 예술 작품이 전시되었다.

SPOTLIGHT HONG KONG



홍콩에서 10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

홍콩의 신계 지역의 샤타우콕(사두각) 마을 내의 7개 하카 마을에서는 10년에 한 번 합동으로 지역 우애를 다지고 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제사 (Sha Tau Kok Hing Chun Yeuk Da Chiu Festival, 沙頭角慶春約十年一屆太平清醮)를 지낸다. 가장 최근 개최된 작년 12월 축제에서는 대나무로 구성된 큰 무대에서 광동 오페리를 선보였으며, 모든 방문객에게 민속춤 공연과 채식 연회가 제공되었다.



개장 40주년을 맞은 홍콩의 맥리호스 트레일

8개의 자연 공원에 걸쳐 신계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장엄한 맥리호스 트레일이 1979년 개장 이래 40주년을 맞이하였다. 100km에 이르는 이 산책로는 도보 여행자와 운동 선수들에게 인기 있는 도전 코스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세계 최고의 하이킹: 꿈의 길 20곳'중 하나에 선정되기도 하였다.